|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특성 및 개화생리** | | | | |
|  |  | 부발디아는 식물체의 활력과 더불어 재배온도와 단일이 관계하여 꽃눈분화와 발달이 결정되는 단일식물이다. 광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여 장일, 단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면 언제라도 화아분화하는데 하우스 온도가 25℃이상이 되면 반응이 둔해져서 꽃수가 감소한다. 밤 온도는 14℃이상, 낮 온도는 25℃이하로 관리한다.  부발디아는 생장이 빠른데다 광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출하규격(초장)이 짧은 경우는 한해에 몇 번이라도 출하할 수 있지만 초장을 70cm이상으로 수확하는 경우(전조처리 8월 25일부터 4월말까지)는 키가 30~40cm정도 자랐을 때 차광처리를 하면 개화기에 원하는 초장을 확보할 수 있다. 연중 차광처리를 하면 수확기간이 짧아지고 작업이 쉬워진다.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절화, 부케, 꽃다발, 분화용 등으로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 | | | |
|  |  | **2. 종과 품종** | | | | |
|  |  | 부발디아는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반내한성의 관목 또는 다년초로 열대아메리카에 30종 정도가 자생한다. 원예품종으로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은 교잡종과 Bouvardia longiflora  이다. | | | | |
|  |  |  | **가. Bouvardia leiantha** | | | | |
|  |  |  | 키가 30~80cm정도 되며 총생한다. 꽃은 주홍색이고 개화기는 가을부터 봄이다. | | | | |
|  |  |  |  | | | |
|  |  |  | **그림 1. 부발디아 개화모습** | | | |
|  |  |  | **나. Bouvardia longiflora** | | | | |
|  |  |  | 키가 1m에 달하고 잘 분지하는 반 관목이다. 꽃은 백색이며 향기가 강하다. 개화기는 여름부터 가을까지이다. 현재 원예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백색종은 주로 이 종을 이용하여 개량한 것이다. | | | | |
|  |  |  | **다. Bouvardia ternifolia** | | | | |
|  |  |  | 키가 60cm정도 되는 관목으로 꽃은 주홍색이다. 개화기는 봄부터 초여름까지 이다. | | | | |
|  |  |  | **라. 교잡종** | | | | |
|  |  |  | 주로 재배되고 있는 원예품종은 레이안타(Bouvardia leiantha  ), 롱기플로라(Bouvardia longiflora  ), 터니폴리아(Bouvardia ternifolia  ) 등의 종에서 나온 교잡품종이다. 적색꽃 이외에도 미국과 독일에서 여러가지 색과 모양을 가진 교잡품종을 만들었으며, 일본에서도 여러 품종들을 선발하여 절화나 분화로 널리 재배하고 있다. | | | | |
|  |  | **3. 재배방법** | | | | |
|  |  |  | **가. 모주의 관리** | | | | |
|  |  |  | 한번 정식하면 3년간은 수확한다. 그리고 1년에 3~4회는 수확하므로 모주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정식하기 전에는 흙 속에 유기물과 토양개량제를 충분히 넣는다. 꽃눈이 확인되면 수확 때까지 관수량을 늘린다. 수확한 후에는 정지작업을 하고 추비를 충분히 준 후에 관수하여 새로운 눈의 발달을 촉진한다.  한 주에서 7~8개의 싹이 나오므로 25cm정도 자라면 솎음전정을 하여 한 주당 3개 정도만 남긴다. 이렇게 솎음한 눈을 삽목하면 묘로 사용할 수 있다.  채화 줄기에서 새로운 눈을 발생시켜 몇 번 채화한 후에 3월경에 채화할 때 전정을 하면 식물체에 손상 없이 안정된 채화를 할 수 있다. | | | | |
|  |  |  | **나. 묘의 번식** | | | | |
|  |  |  |  | **(1) 삽 목(揷芽)** | | | | |
|  |  |  |  | 삽수준비는 채화한 후에 많은 눈이 발생한다. 이 싹을 솎음한 것을 삽수로 이용한다. 4~6월경에 삽목 한다.  삽수조제는 2매엽과 3매엽이 있으므로 되도록 3매엽의 새싹을 본엽을 3매 붙여서 삽수로 사용한다.    삽목상의 배지온도는 23~25℃가 좋다.  삽목상의 깊이는 8~10cm로 한다. 삽목배지는 피트모스를 단용으로 하거나 또는 피트모스 5 : 펄라이트 1로 한다. 삽목상에 충분히 관수한 후에 비닐을 덮어 배지의 온도를 높여준다.  삽수는 오소사이드 800배액에 5초간 담근 후에 꽂는다. 삽목이 끝나면 다찌가렌 수용제를 살포하고 비닐과 차광망을 쳐서 직사광선을 막아준다. 삽목상은 밀폐시켜서 공기의 출입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 | | | |
|  |  |  | **다. 화아분화와 발달의 촉진(발뢰까지)** | | | | |
|  |  |  | 밤 온도는 14℃이상, 낮온도는 25℃이하로 관리한다. 25℃이상이 되면 환기를 한다. 여름 고온기에는 백색의 한랭사를 쳐서 엽소(잎데임중상)를 방지해준다.  초기생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을 충분히 받도록 한다. 초장이 30~40cm정도까지 자라면 단일처리(차광)를 시작하여 화아분화의 발달을 촉진한다. 가을부터 봄에 걸쳐서는 초기생육을 촉진하면 화아분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전조를 하여 충분한 초장이 되면 차광(14시간 차광, 10시간 일장)을 실시한다. 백색과 핑크색 종은 7~10일간 차광한다.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채화한 후에 비료를 주고 충분히 관수한다. 꽃눈이 확인될 때까지만 정기적으로 관수를 한다. 꽃눈이 생긴 후 채화할 때까지는 물을 주지 않는다.  용토는 충적토양이나 사양토가 좋으며, 비료는 10a당 기비로는 질소 16kg, 인산 10kg, 칼리 14kg을 준다. 채화한 후의 추비는 복합비료를 10a기준으로 60kg을 준다. 10월부터 2월까지는 추비량을 20%정도 줄인다. | | | | |
|  |  |  | **라. 작형별 품종** | | | | |
|  |  |  | 부발디아의 품종에는 3가지 계통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하이브리드계(소륜종)로 화이트 L, 다크 핑크, 체리핑크, 레드(색깔을 진하게 만들기 쉬움), 로즈 핑크, 라이트 핑크, 이에로(꽃다발 수가 적음) 등이 있다. 롱지플로라계는 대륜종으로 에베레스트(생육을 촉진하기 쉬움), ’후지 유끼’, ’백옥관’ 등이 있으며, 8겹의 겹꽃계에는 더블화이트, 더블라이트핑크, 록사누 등이 있다. 재배할 때의 색의 조합은 백색 40%, 핑크 30%, 대륜 10%, 기타 20% 정도가 적당하다. | | | | |
|  |  |  | **마. 재배 유의사항** | | | | |
|  |  |  | 새로운 토양에서는 5~6년 정도 재배할 수 있지만 연작을 계속하면 병해충이 발생하여 고사주가 생긴다. 토양소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토양전염성인 병해충이 발생하면 토양소독을 하고 다른 화종을 2~3년간 재배한 후에 다시 부발디아를 심는 것이 좋다.  이 식물에는 2매엽과 3매엽이 있으며 잎이 많은 쪽이 꽃다발 수가 많고 부피도 크다. 따라서 삽목할 때에 주의하여 3매엽으로부터 삽수를 채취하도록 하고 우량묘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사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화중에는 토양수분이 적도록 휴면에 가까운 상태로 관리한다. 그리고 식물체에 가는 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부 제거하지 말고 새눈이 나오고 나서 잘라준다. 또한 채화한 후에 관수를 하고 러브시트를 쳐서 새눈의 발생을 촉진한다. 심한 자극을 주거나 극단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 | | | |